

장흥군 표고버섯·매생이 첨가 소시지 개발

축산사업소 10개월 제조시험
최상의 배합 비율 찾아내
내달부터 소비자에 선 보여

장흥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매생이를 활용한 수제 소시지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흥군축산사업소(소장 문정길)는 장흥토요시장 내 피엔씨푸드(대표 조강제)에 육제품 제조기술을 보급하고 수제 소시지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제 소시지 개발로 육가공업 활성화와 함께 저지방 식육부위 소비 확대는 물론 지역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매생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은 증가되고 있지만, 즐겨먹는 요리방식은 구이 등 몇 가지 용도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조강제 피엔씨푸드 대표가 표고버섯과 매생이를 활용해 새롭게 개발한 수제 소시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부위별 소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육가공업체와 농가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농촌진흥

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지원으로 '육가공업 제조이용 부가 가치 향상 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해 이

성과를 냈다.

표고버섯과 매생이 첨가 수제 소시지 개발에 필요한 배합비 및 제조기술을 완성한 데는 농촌진흥청 육가공업연구회에 가입해 적극 활동하고 있는 피엔씨푸드 조강제 대표의 역할이 컸다.

조강제 피엔씨푸드 대표는 "장흥의 특산품을 첨가한 특제 수제 소시지 개발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꾸준한 제조시험을 거쳐 최상의 배합비 조합을 찾았다"며 "새로운 제품개발로 맛있고 건강한 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발에 참여한 박윤미 축산연구사는 "비인기 부위로 육가공품을 만들면 부가가치가 올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소규모 축산판매제조 가공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엔씨푸드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이번 개발한 수제 소시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일·가정 양립 남성 요리 교실' 개강

장흥군은 지난 24일 다문화교류센터에서 '맞벌이 일·가정 양립 지원 남성 요리 교실'을 개강식을 개최했다.

장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선자)에서 위탁받아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맞벌이 가정 가장 20명이 참석했다. 이수정 교수가 지도를 맡아 모두 8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생활 요리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남성 참가자들은 요리에 관심이 많으나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요리의 기본부터 응용까지 다양한 요리법까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한번도 밥을 해보지 않았지만 직접 내손으로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 신청했다"며 "열심히 배워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손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남성 요리 교실은 요리를 매개로 가족간의 소통과 화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양성평등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영농철 앞둔 농가

안전장비·재해보험 지원

강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장비와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장비는 농약 살포에 따른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이 1세트다.

논농업과 밭농업 방제 작업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가당 1세트씩 총 535세트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2017년 논·밭 경작면적과 농가수 비율로 각 읍·면마다 배정한다. 지난해 지원한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강진군은 각종 사고에 따른 농업인들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6%, 군비 24%, 농가가 20%를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강진군 농가수의 75%인 3998농가가 가입(농가부담 8300만원)했으며, 309건의 각종 상해에 대해 193농가에게 2억6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평균 2만760원 저부담으로 약 137만원의 보험혜택을 봤다.

송승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영농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재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 영랑생가 활짝 핀 모란

강진을 영랑생가 앞에 모란이 탐스럽고 커다란 꽃망울을 터트렸다.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 주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영랑백일장과 낭만 버스킹, 감성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제 15회 영랑문화제'가 열렸다. <강진군 제공>

강진만 남포축구장 광장, 문화체험 '남포놀장'으로 재탄생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확보

강진만 생태공원의 주요 출입구인 남포축구장 광장이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소통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8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에 강진군 남포축구장 광장이 선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강진군은 국비 4억원을 확보, 남포축구장 광장을 강진만 생태공원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남포놀장'으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의 상징물인 범선을 가리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또 방문객 안내소와 문화복합지원소를

신설하고 생태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조형게이트를 만들어 이 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터 공간디자인 등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행사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역민이 활용이 가능한 복합적인 창작교류 공간을 조성해 오는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영암군 전남 군 단위 첫 납세자보호관제

기획감사실에 보호관 배치

영암군은 전남 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업무 처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영암보건소 독거노인 치매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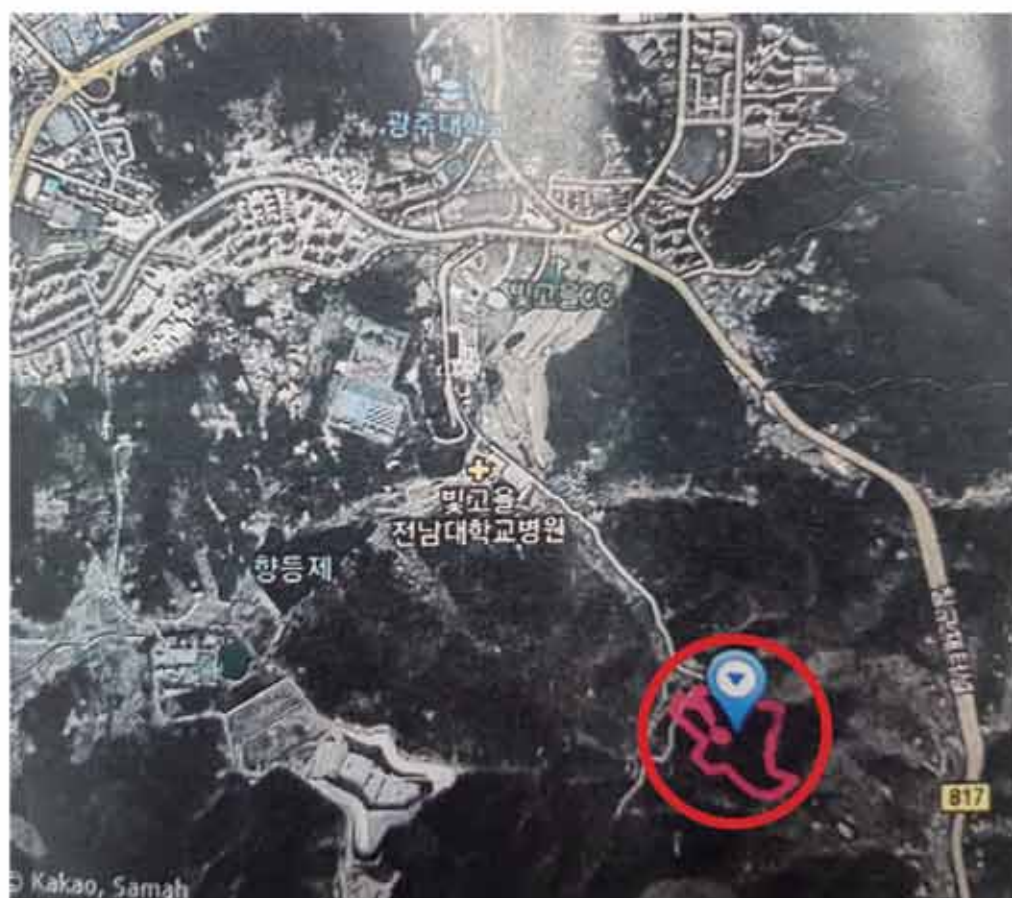
영암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25일 자활센터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5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파트너란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라는 의미로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주변에 정보 알리기 등을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

에게 치매환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법들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 가까이 있는 부모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소는 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선별검진과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0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8-1230